

도심 한복판 광주 지하철 공사장 화재 '교통대란'

자욱한 검은 연기에 신고 빗발쳐 도로 통제 출근길 극심한 차량정체 복공판 용접작업 중 불티 옮겨붙어 대구지하철 폭발 떠올리며 '불안감'

“새카만 연기가 솟구쳐서 화들짝 놀라 달려와 봤더니 매캐한 연기 때문에 눈도 제대로 못 뜨겠더라고요.”

2일 오전 8시42분께 남구 백운광장 도시철도 2호선 4공구 공사현장. 지하철 공사가 한창인 이곳에 새카만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연기는 곧 인근 도로와 상가로 퍼지며 주변 상인과 주민들을 긴장하게 했다. 현장 근로자들은 흑시모를 위협에 도로로 뛰쳐나갔고 앞진데 앞진격으로 출근길 차량까지 정체돼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화재를 눈앞에서 목격한 70대 허모씨는 “빨래를 널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불이 난 걸 알았다”며 “주변 이웃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현장으로 달려나갔는데 연기 때문에 출근길 차량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다 멈추다를 반복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지역 인근에 있던 경찰은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곧바로 소방차량 진입을 돕기 위해 백운광장에서 남광주시장으로 향하는 대남대로 800m 구간을 통제했다. 출근길 주요 길목인 백운광장 일대 도로가 통제되자 차량들이 움푹달락하지 못한 채 정체가 이어졌다.

장사를 위해 오전 7시부터 근처에 나와



2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광주소방 제공

있었다는 상인 김모(78)씨는 “도로를 통제하니 행인들과 차량이 갓길로 몰렸다. 여기서 장사한 지 오래됐는데 버스가 이 길로 지나간 건 처음이다”며 “화재 상황을 모르는 뒤쪽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 정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225명과 장비 47대를 투입했다. 화재는 발생 1시간 뒤인 오전 9시44분께 진화

됐다. 배기관을 통해 연기를 배출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며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도 잡혔다.

주민 윤모(52)씨는 “평소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면서 중장비나 공사 부품들이 도로를 드나들 때마다 위험해 보였다”며 “큰불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솟구치는 연기를 보면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공사장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떠올라 불안했다. 지하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항상 안전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5년 4월2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 공사 현장에서는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3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대구 참사를 지켜본 광주 시민들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내 잦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연기를 빼내자 불이 났던 복공판 아래 지하 공사현

장이 드러났다. 지하 곳곳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불이 났던 곳에 소화기 두개가 널브러져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짐작케 했다.

화재는 안전관리자 1명을 포함한 작업자 4명이 지상에서 산소절단기를 사용해 복공판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지하 7~8m 아래에 있던 방수시트 보호재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당시 지상에 있던 현장 작업자 11명이 급히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대량의 유독가스가 배출되면서 사고 현장 일대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차고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광주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만약 지하에 작업자들이 있었다면 유독가스 흡입으로 큰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대부분 화재가 작업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오늘 화재 발생한 것과 관련 대책을 현재 모색 중”이라면서 “아직 특별한 대책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사고 발생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광주에서 용접·절단·연마 작업 중 발생한 화재는 2019년 4건, 2020년 9건, 2021년 9건, 2022년 21건, 2023년 8건 등 총 51건으로 집계됐다.

정상이 기차·나다운 수습기자

'뉴월드 호텔 살인사건' 조폭, 항소심도 실형

1994년 서울 뉴월드호텔 살인범 해외 밀항...항소심도 징역 18년

199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일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서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은 1991년 10월7일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되자 전 서울 조직폭력배인 강서구 영산과 조직원들이 1994년 두목을 죽인 조직원 출소 소식을 듣고 찾아가 영똥한 조폭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영산과 행동대장이던 서씨는 1994년 12월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뉴월드호텔 앞에서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했던 광주 조폭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중 광주 동구 조직폭력배(신양OB파) 조직원 2명

을 숨지게 했다.

서씨는 사건 직후 중국으로 밀항,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귀국하면서 사건 22년이 지난 2016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며 자수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16년 중국으로 도망쳤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려 이같은 꾀수를 쓴 것. 하지만 살인죄 처벌은 피하고 밀항 혐의로만 가벼운 처벌을 받고 국내에서 생활하려던 그의 계획은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물거품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을 보복대상으로 오인해 무자비하게 찢었다. 보복범죄의 악순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계획된 범행인 점, 범행방법의 대담성과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당사에서 다시 사건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승민섭 기자

오월대책위 “5·18조사위 종합보고서 초안 즉각 공개하라”

“전원위 회부조차 안돼” 비판

광주 시민단체가 5·18민주화운동진상 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에 종합보고서 초안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일 오월정신지킴이범시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조사위는 지금 당장 종합보고서의 초안을 광주 공동체에 공개해 평가받으라”며 목소리 높

였다.

대책위는 “조사위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설명회에서 종합보고서를 통해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종합보고서가 개별보고서들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면 왜곡 사태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에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수간티니'

전쟁피해여성 권익향상 투쟁 불법 구금 고문·성폭행 등 고초 18일 5·18기념센터 시상식 참여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스리랑카 인권활동가인 수간티니 마티야무탄 탕가라사(55)씨가 선정됐다.

2024 광주인권상심사위원회(심사위)는 2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 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리랑카 타밀 일람 여성들의 인권향상에 노력해온 수간티니씨를 2024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68년 스리랑카 타밀어 사용 지역인 자프나 코쿠빌 마을에서 태어난 수간티니씨는 전쟁피해 당사자로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의 인권신장·권익향상을 위해 수십 년간 투쟁 활동을 이어왔다.

심사위에 따르면 타밀족과 스리랑카 정부의 전쟁이 발발했던 2007년 타밀 일람 주 전체는 스리랑카 보안부대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수십만명의 타밀인들이 군 통제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등 인권 탄압이 자행됐다.

2009년 5월18일 스리랑카 정부가 타밀족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면서 전쟁은 막을 내렸지만, 정부의 탄압은 계속됐다. 전쟁 당시 타밀군의 활동을 홍보하는 등의 일을 했던 수간티니씨는 악명 높은 팜파 이마두 수용소에 불법 구금돼 강간, 고문 등 고초를 겪었다. 2012년 정부군을 살해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수간티니씨는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수간티니씨는



2024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수간티니 마티야무탄 탕가라사씨.

5·18기념재단 제공

전쟁 피해를 겪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아마라'라는 단체를 세우고, 대표를 맡아 적극적으로 인권옹호 활동을 펼쳐왔다. 아마라에는 현재 263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풀뿌리 조직'으로서 정부가 타밀 일람에 저지른 대량학살 등 범죄를 폭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인 최미경 국제민주연대 대표는 “수간티니가 펼쳐온 지역사회 풀뿌리 운동이 광주의 5·18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타밀족이 겪고 있는 참상이 아직 국제 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수간티니를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그들에 대한 국가적 연대를 표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말했다.

2024 광주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6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다. 5·18기념재단은 14일까지 시상식에 함께할 시민 518명을 모집 받고 있다. 수간티니씨는 시상식에 직접 참여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5·18기념재단이 주관하는 광주인권상은 민주주의와 인권, 인류 평화에 공헌한 국내외의 인사 또는 단체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5·18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자 지난 2000년 제정됐다.

강주비 기자